

임실군 화합·소통의 장 마련
시각장애인 하계 수련대회 성료

임실군과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전북지부 임실지회(회장 허용욱)가 '시각장애인 하계 수련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0일 삼계면 소재 물골산장에서 개최된 수련대회에는 심민 군수, 진남근 군의회 부의장, 한완수 도의원, 김원경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전북지부장, 회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예술단 공연을 비롯해 회원의 장기를 뽐내는 노래자랑이 열려 흥을 돋우고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심민 군수는 축사를 통해 "소통과 협력,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애 인식개선, 시각장애인의 심리안정과 자신감 회복, 사회 적응능력 향상과 잠재적 능력 발굴 등의 복지시책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장애인생활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자 및 보행교육, 흰지팡이와 낱 복지대회, 역사문화탐방, 하계수련대회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가뭄에 '목타는 입실' 극복 나서

평균 저수율 40% 이하·고갈 저수지 속출... 장기화 대비 항구대책으로 '대형관정개발사업' 추진

임실군이 매년 되풀이되는 장기가뭄에 대비한 근본적인 항구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

20일 임실군은 해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항구대책의 일환으로 대형관정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군은 가뭄 발생 시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습 한해 우심지역 저수지 10개소를 대상으로 양수저류사업추진을 위한 대형관정개발사업에 돌입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극심한 한해가 발생하면서 임실군 역시 저수율이 평균 40%도 미치지 못하고, 고갈되는 저수지도 속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예비비 6억 원을 투입해 관촌면 복흥리 황산제를 포함한 9개 저수지에 양수저류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군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 지역농민들은 "반복되는 가뭄 때문에



임실군이 적극적인 가뭄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심민 군수가 관내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농사지를 물이 없어서 애가 탔는데 군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저수지에 양수저류사업을 해줘서 한숨 놓인다"며 "농업용수가 부족한 저수지에 대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너무 고

매파"고 말했다. 군의 적극적인 가뭄대책에는 심민 군수의 농민 중심행정이 주요했다. 심민 군수는 관내 사업현장을 이틀간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듣

고, 현장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담당공무원들에게 "농가들이 농업용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심 군수는 또 지난 달 가뭄이 최고조에 달할 때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 관내에 있는 202개의 저수지 저수율을 확인하고, 상황판을 설치해 지역별 가뭄 동향을 매일매일 점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가뭄대책사업비 14억 1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중·소형관정 굴착과 관유지보수사업, 소류지 보수사업 등을 신속히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가뭄발생시 하천 물 부족 등으로 인해 기본 수리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원이 있는 곳이면 하상굴착과 양수저류시설 설치 등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형 마을공동체 협의회 창립 49개 마을 50여명 회원 역량결집

순창군이 그동안 추진해온 마을만들기 사업관계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순창군마을공동체 협의회를 창립해 실질적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추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순창군마을공동체협의회 창립총회는 20일 청소년센터에서 황숙주 군수, 김종섭 군의회 의장, 마을만들기 읍면대표 및 마을사업 추진위원장, 마을대표 등 관계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했다. 협의회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49개 마을 및 읍면대표 5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역량 있는 인재를 영입해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마을사업 관계자들의 교류와 협력 도모를 통한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순창발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마을사업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이어 나가는 사업을 개발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의회 창립은 실질적인 주민주도형 순창형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창립총회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창립총회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황숙주 군수는 "앞으로 협의회가 순창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모형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동체 발전을 통해 농업농촌에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철 기자



순창군 강천산 병풍폭포 앞에 마련된 세족장 사진.

여름 피서객 맞이 준비 '척척' | 순창 강천산 12억7천만원 투입 세족장 설치 등 등산로 정비

순창군이 강천산에 세족장을 새롭게 설치하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본격적 여름 피서객 맞이 준비를 끝냈다.

군은 정미가 끝나고 본격적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오는 22일부터 피서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여름 성수기 관광객 맞이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 성수기에 들어간다.

군은 본격적 휴가가 시작되는 오는 22일부터 피서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등산로 정비 등을 끝낸 상태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병풍폭포 앞에 마련된 세족장이다. 세족장은 맨

발산책을 끝낸 관광객들이 편히 앉아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다. 발을 씻는 기능뿐만 아니라 물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만들어 삼삼오오 앉아 발을 담그며 휴식도 취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물놀이 장소로도 이용하고 있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세족장 뿐만 아니라 군은 총 12억 7천만원을 투자해 탐방시설 확충, 노후 시설 및 위험 시설 정비, 세족장 정비, 계곡탐방로 준설, 목표설치 등 12개 사업을 완료해 여름 성수기 새로운 모습으로 관광객 맞이를 마쳤다.

또한 방향안내판 54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도 추진해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강천산은 4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여름과 가을 방문객이 가장 많다. 특히 여름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깨끗한 계곡물에 더위를 식히러 온 피서객들로 북비면서 오전 9시 정도면 계곡의 전경 좋은 자리는 다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7~8월 주말이면 하루에 3만명 이 넘게 방문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순창=이왕철 기자

육군 35사단,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임실군, 장병 9명에 유공자 선정 표창장 수여

35사단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임실지역 농가를 찾아 농작물 수확을 도와주는 등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20일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참여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봉사활동에 앞장선 육군35사단 및 7733부대의 군인 9명의 유공자를 선정해 20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들 35사단 군인들은 최근 임실군 공무원들과 함께 일손부족으로 농작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작기 수확을 위

한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했다.

육군35사단에서는 최근 420여명의 군인이 참여해 11ha에 29농가의 일손돕기를 추진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었다. 또한, 임실군 공무원들도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각 부서와 읍·면직원 300여명의 공무원이 7ha, 22농가를 찾아 농작물 수확에 참여했다.

심민 군수는 유공자 시상식에서 "일손부족과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작물 작기 수확을 위해 앞장서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남원시는 지역사회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집중 조사를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실시 한다. 이번 조사는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등록 장애인중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인권침해가 의심

되는 장애인의 경우 직접 방문 확인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로는 신체적, 성적 폭력이나 강제 노동, 경제적 착취가 있으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유기와 방임 또한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